

## 엠마오로 가는 길:가장 모범적인 방식

국가형제회 청소년분과장 Kathleen Molaro, OFS

신자들의 사명은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다. 서약식에서 “네, 원합니다” 하고 응답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이웃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 복음중심의 삶으로 이끌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영속적양성과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쇄신하고 성화하려는 노력을 할 때 형제회는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완수 하려면 형제회 모임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세상, 특히 청소년들에게 프란치스칸 정신으로 닦아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엠마오(루카 24:13-35)의 예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모범적인 방식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같이 가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슬퍼하고 묻고 답하고 하였다. 그들의 고통과 고민을 들어 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빵을 쪼개어 먹었다. 그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기록해 지려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 형제회도 이렇게 기록함을 추구면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격려하는 관계를 경험해야 한다.

양성에 대한 미국 주교회의 문서인 “우리 안에 불타는 마음”에 보면 양성 봉사를 잘 하려면 우선 예수를 사랑해야 하고, 사람들과 근심걱정을 나누어야 하며, 인생여정을 같이 걸어 가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그들의 기쁨, 희망, 근심과 걱정이 무엇인지 잘 들어 주어야 한다. 이 주교회의 문서는 전형적인 엠마오 방식을 택하고 있다.

처음부터 청소년 분과에서는 엠마오 방식을 도입했다. 기도와 양성을 통하여 청소년들과 성경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던지 평화, 기쁨, 연민과 사랑을 갖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마음과 정신이 움직여 예수님이 말씀과 행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간 제자들 처럼 젊은이들은 우리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느님의 마음을 어렵푸시 짐작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묵상 함으로서 많은 교훈을 얻는다. 그들의 인생여정은 혼동과 절망으로 짙 막힌 상태에서 확신과 희망으로 환히 열리고 신비스런 하느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가늠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예수를 좀 더 잘 알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를 알리고 프란치스칸 삶의 방식을 알림으로서 젊은이들은 마침내 유프라(청년형제회)를 조직하게 될 수도 있고 재속회원으로 불리움을 받았는지 알아 보기 위한 양성과정을 밟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Going, Going, Gone; 젊은 냉담자의 역학*이란 책에서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의 핑계와 변명 또는 요구사항을 들어 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 고 말한다. 우리와 젊은이들간에 신뢰관계가 없으면 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분과에서는 이 거리두기 시기에 엠마오 방식을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1.헤더는 젊은이들을 위한 대화의 장인 “성령” 이라는 저녁 모임을 시작했다. 그 프로그램은 “Theology on Tap”과 비슷하게 젊은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난다는 개념이다.(지금은 소셜미디어로 가야겠지만!) 자세한 것은 [youngfranciscan@gmail.com](mailto:youngfranciscan@gmail.com).로 헤더에게 문의 할 것

2. 젊은 사람들은 특히 자연을 좋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만 잘 지키면 아직도 많은 공원과 트레일을 이용 할 수 있다. 공원에서 피자파티, 백팩산책, 개울청소등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얘기를 들려 주는 기회로 삼자.

3. 그들이 봉사활동을 우리가 도울 수도 있다. 그들을 화상으로 만나서 입양아에게 백팩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던지, 노숙인에게 줄 위생용품을 봉투에 담는 일 또는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줄 담요를 만드는 일등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자. 이런 일은 각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4. 젊은이들에게는 기도모임이 좋을 수도 있다. 성당은 못 가니까, 화상으로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다. 같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각자 촛불을 켜고 공동의 기도하는 가상공간을 꾸밀 수 있다.--- [www.crs.org](http://www.crs.org) 사이트에 가면 여러가지 기도형식이 있는데 젊은이들은 그들의 취향에 맞게 기도문을 만들면 된다.

5. 중요한 것은 뭐든지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이다. 각자는 이 화상모임에 공작자료를 갖고 와서 에페소서 6:10-17 를 읽고 나눈 다음, 가슴받이 갑옷, 구원의 투구, 평화의 검등을 만들어 서로 만든 것을 비교 평가해 본다.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이 있으면 청소년 분과에 알려주기 바란다. 많은 청소년형제회가 다른 곳에 있는 젊은이들과 사귀고 싶어 한다. [kmmolaro@gmail.com](mailto:kmmolaro@gmail.com)

---

<sup>1</sup> United States Confraternity of Catholic Bishops (USCCB), *Our Hearts are Burning Within Us*, USCCB Publishing, #8

<sup>2</sup> Ibid, #9

<sup>3</sup> Ibid, #11

<sup>4</sup> A Study of Saint Mary's Press, *Going, Going, Gone; The Dynamics of Disaffiliation in Young Catholics*, St. Mary's Press, 2017, pg. 7

## 사진설명:

아리조나에 있는 한 청소년형제회에서는 회원들끼리 친분이 아주 두터웠는데 그 중에 결혼한 부부도 나왔다. 신랑신부는 여러 해 동안 형제회를 같이 한 사람들이다.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 청소년 형제회는 인간주거생태에 대한 프로젝트인 집 짓는 일을 회원들이 다 같이 거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 여겨 볼 것은 함께 일하는 프란치스칸 기쁨이다.

